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4. 9. 29(나해) / 제2119호

네 손이
너를
죄짐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마로코 9장 43절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민수 11,25-29

화답송 | 시편 19(18),8,10,12-13,14(◎ 9ㄱ)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 야고 5,1-6

복음 환호송 |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오늘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겁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따라가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귀결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주일입니다.

그 마음이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에도 담겨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재물, 금과 은을 더 많이 쌓기 위해 애쓰며 지냈던 삶에서 멈추어 하느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작은 상처 하나

글 | 천상영 비오 신부(호평 본당 보좌)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상처야 가만히 두면 금방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라고 만만히 본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작았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점점 커져, 결국 약을 발라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덤이었습니다.

상처가 생긴 즉시 약을 발랐더라면, 새살이 돋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앓보고 방치한 것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더 큰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마르 9,43)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죄를 짓는 순간마다 신체를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러섬 없이 죄에 맞서는 결단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앓보지 않고 즉시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앓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느님께서도 눈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단호히 악에 맞서기보다,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작은 상처가 큰 상처로 번지듯이,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는 더욱더 악한 경향을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냅니다. 순교 성인들께서 보여주신 물러섬 없는 신앙을 바라봅시다. 배교의 유혹에도, 고통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인들의 열정을 생각합시다. 믿음을 향한 단호함, 물러섬 없는 열정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합시다.

“오로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판에서 승소하기를 원하나...

(하느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글 | 성진욱 베드로(법무법인 해성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일상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재판을 앞두고도 종종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은 “오늘 재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사건 꼭 승소하게 해 주소서!”라고 대놓고 뽐뽐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기도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지만, 유독 더 신경이 쓰이는 사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그날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청구취지 금액도 상당히 크고, 상대방 변호사와의 법리 공방도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져 난도가 꽤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 저 이 사건 꼭 이기고 싶습니다! 승소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변론을 마치고 상대방 변호사의 반박 변론을 듣기 위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그 변호사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목주반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 그 목주반지가 제 눈에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는데, ‘상대방 변호사도 나처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께 꼭 승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랬다면 과연 하느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느님도 참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청원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날 이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마침 법률가의 수호성인인 ‘성 토마스 모어에게 드리는 변호사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 중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는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정의를 추구하며 기도합니다’, ‘의뢰인에게 충실하고, 모든 이에게 정직하고,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며, 언제나 양심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승리에 집착하려다가 제 영혼을 잃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들의 좋은 종이 되되, 하느님의 종이 먼저 되게 하소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 놓았습니다. 기도문을 계속 보다 보니 올바른 청원기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요구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결국 하느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마태 26,39 참조)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나약한 신앙인이기에 여전히 기도 중에 승소를 바라는 제 마음을 스리슬쩍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하느님께서 애교로 바라봐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느님,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를 원하나 오로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St. Franciscus
-photo by Fr James Bradley
-in the Church of St Mary in Greenwich-Connecticut

무소유의 삶,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 10월 4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프란치스코(1182~1226)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옷감 장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를 너무 좋아해 아들의 이름을 요한에서 프란치스코로 바꾸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거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처음엔 못 본 척했지만, 이내 잘못을 뉘우치고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평생 지켰습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아시시와 페루자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으로 참전한 프란치스코는 전쟁 포로가 되어 1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에도 병을 오래 앓았습니다. 이런 시련은 프란치스코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나환자를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용기를 내어 나환자의 손에 돈을 쥐여 주고 그의 손에 입술을 댔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나환자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프란치스코는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낡은 성당에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수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지는 내 집을 고쳐다오." 프란치스코는 즉시 아버지의 창고에서 옷감을 꺼내다 팔아 돈을 마련해 낡은 성당의 수리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화가 나 쇠사슬로 묶어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법정에서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을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자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탁발을 시작했습니다. 모자가 달려있고, 밧줄로 허리띠를 매는 양치기들의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는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행한 기적 중에 '새들에 대한 설교'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가 새들에게 가까이 가자 새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설교하자 새들은 설교를 알아들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어 새들에게 십자가를 굿고 축복해 준 다음, "날아가라."라고 말하자 일제히 날아갔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주의 길잡이로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 그분은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던
신비주의자이시며 순례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24년 사제·부제 서품 공시

✝ 사제 서품식	12월 6일(금) 14:00
✝ 부제 서품식	12월 5일(목) 14:00
✝ 서품 공시 기간	9월 28일(토)~10월 27일(주일)

사제·부제 서품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교회에는 유익이 되도록 신자 여러분의 기도를 청하며,
아울러 수품될 아래 후보자들의 덕망과 인품에 대하여 신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누구든지 수품 후보자의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신앙적 양심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교회법 1043조).

✝ 사제·부제 수품 후보자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게 하셨나이다.
 - 당신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당신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제·부제 수품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니,
그들이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 ◎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사제·부제 수품 후보자들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사제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천주교 수원교구장 인준, 2010. 5>

✠ 2024년 사제 수품 후보자 명단

번 호	이 름	세 례 명	현본당
1	권영익	레 오	조 암
2	신용주	미카엘	일 월
3	장진석	마르코	본오동
4	이상필	보니파시오	동판교
5	나현성	베드로	신 갈
6	김동휘	베드로	대천동
7	심기윤	요한사도	선부동
8	정윤상	마 로	하 안
9	정영훈	시 몬	범 계

✠ 2024년 부제 수품 후보자 명단

번 호	이 름	세 례 명	현본당
1	신성수	라파엘	용 인
2	김윤중	프란치스코	서정동
3	정지훈	로벨토	대천동
4	정민규	요한세례자	분당성요한
5	박 강	가브리엘	동탄반송동
6	김기현	마태오	아미동
7	고원일	알폰소	신봉동
8	박성인	라파엘	왕 곡
9	원가뇌	바오로	중국 이문쓰

■ 기흥 본당 성전 기공식

일시 10.3(목) 10:30
 장소 기흥 성당(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3번길 12-15)
 문의 031) 285-0362 기흥 본당

■ 입북동 본당 설정 10주년 기념미사

일시 10.6(주일) 10:30
 장소 입북동 성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9번길 32)
 문의 031) 227-7735 입북동 본당

■ 태평동 본당 설정 25주년 기념미사

일시 10.6(주일) 10:30
 장소 태평동 성당(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14번길 11)
 문의 031) 721-3367 태평동 본당

■ 금주에 기억할 사제



신성우(마르코) 신부
 1978년 10월 5일 선통

■ 휴무 안내

10월 1일(화) 국군의 날(임시공휴일) 10월 3일(목) 개천절(공휴일)은
 수원교구청(대리구청)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화성순교 성지 10월 순교영성 피정

일시 10.4(금) 14:00~17:0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북수동 성당)
 4층 대강당
 주제 성체조배의 능력
 강사 전삼용 신부
 찬양 도미노 찬양단
 미사 최진혁 신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어능성지 월례 음악 피정

일시 10.26(토), 11.23(토) 10:30~16:00
 내용 찬양 미사, 강의, 찬양, 폐제 기도
 미사 박상호 신부
 문의 031) 636-4061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과 함께 하는
찬양미사와 성체강복

일시 10.12(토) 11:00
 장소 남한산성 성지 성당
 문의 031) 749-8522 남한산성 성지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 찬양 미사’, ‘열린 찬양 기도회’

열린 찬양 미사
 일시 10.5(토) 16:00~18:00
 열린 찬양 기도회
 일시 10.19(토) 16:00~18:00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세례받은 청년
 참고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2025년 해외원조 지원사업 신청

대상 해외원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회
 내용 가난하고 소외된 국가 지원
 마감 10.16(수) 17:00
 참고 <https://caritas.casuwon.or.kr>
 문의 070) 4047-1462
 사회복음화국 사회복지회

수원교구 제94차

선택(CHOICE) 주말 참가

일시 11.1(금)~3(주일) 2박 3일
 장소 갯들이 피정의 집
 인원 선착순 40명
 비용 13만 원
 신청 9.30(월) 10:00~10.18(금)
 참고 v1.casuwon.or.kr ‘공지사항’
 문의 031) 8019-5396 제1대리구 청소년3국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강좌 첫걸음, 일반 과정 수강료
 -5만 원(한 과목 수료 시
 2만5천 포인트 지급)
 -2과목 수강 시 10% 할인
 -3과목 수강 시 15% 할인
 성경 통독 과정 신설-무료
 신청 365일 신청가능!
 참고 <https://cyberbible.casuwon.or.kr>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 360-7635, 010) 7470-7966

미사·피정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9월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9.30(월) 10: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참고 cafe.naver.com/floralliturgy
 문의 010) 6278-2488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및 미사

시간 12:30~17:00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일시 10.2(수).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일시 10.5(토). 홍성남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일시 10.19(토). 윤민재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팀, 신상옥 가족팀
 문의 0505) 091-0523 가정선교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장소 서울 명상의 집
 개방의 날 무료 피정
 일시 10.4(매월 첫 금) 10:00~15:30
 주요 개방 미사
 일시 매주 수 15:00
 다네이 영성수련
 일시 10.25(금)~27(주일)
 단식 피정
 일시 11.25(월)~29(금)
 문의 02) 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치유평정

일시 매주 화요일 12:30~16:00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10.1 김종국 신부
10.8 최영준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 5514-4077 토아올람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10.5(토) 09:00~11:30
장소 대건청소년회관(권선동 성당 내)
미사 허현 신부
문의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토요치유평정

일시 10.5(토) 13:00~17:0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성령새신 기도의 집
강의 박현민 신부(미사)
대상 누구나(개인컵 준비)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마리아사제 운동 체나콜로 영성피정

일시 10.10(목) 13:00~16: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모든 신자
강의 박희전 신부(미사)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피정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원
렉시오 디비나
일시 10.23(수) 15:00
~27(주일) 13:00 4박 5일
비용 30만 원
예수기도
일시 10.29(화) 15:00
~11.1(금) 13:00 3박 4일
비용 24만 원
문의 010) 5230-2986
양주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일시 매주 목요일 10:30~17:30
장소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손광배 신부, 회장단(이상기
김완식, 고영민, 한영임)
문의 010) 3248-9705 지혜의 샘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0.19~20, 11.2~3
3박 4일 10.24~27, 11.28~12.1
8박 9일 10.7~15, 11.14~22
40일 10.4~11.1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 4906-5722, 031) 953-6932

제27차 교구 성체 현양 대회

일시 10.24(목) 09:30~16:00
장소 죽산 성지
강사 김재덕 신부
대상 모든 신자
참고 참여자 전원 전대사 부여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수원가톨릭대학교

정하상바로후원회 일일피정

일시 10.27(주일) 10:30~17:00
장소 수원가톨릭대학교
주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루카 24, 15)
신청 9.23~10.11
참고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문의 031) 290-8816, 8822
수원가톨릭대학교 후원회부

교육·모집

수원가톨릭그레고리오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일시 10.9(수) 19:30
장소 동백성요셉 성당
내용 그레고리오성가와 다성음악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4162-1344
수원가톨릭그레고리오합창단

여성연합회 제84차 정기교육

일시 10.17(목) 13:00~17: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여성 신자
주제 복음적인 삶과 영혼 돌봄
강사 광승룡 신부
미사 16:00 유승우 신부
회비 1만 원
계좌 신한 131-002-037976 여성연합회
문의 031) 242-1379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수원ME 약혼자 주말 66차

일시 10.18(금)~20(주일)
장소 아론의 집(성 라자로 마을)
대상 혼인 전 미혼남녀, 혼인 1년 이내
참고 이수증 수여
문의 031) 251-2258, 010) 2725-4147
수원 ME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관신앙연구소

제47회 학술발표회

일시 10.19(토) 10:00~13:30
장소 수원가톨릭대학교 하상관 토마스홀
주제 희망의 순례자를 위한 희년의 신학
참고 점심 식사 미제공, 개인 컵 지참
문의 031) 290-8814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설 이성관신앙연구소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486차

일시 10.25(금)~27(주일)
장소 아론의 집(성 라자로 마을)
대상 혼인한지 2년 이상 된 부부
참고 www.suwonme.or.kr
문의 031) 251-2258 수원ME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작곡 포함)
내용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접수 10.14(월)~25(금)
전형 11.15(금). 최양업홀
참고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문의 02) 740-9704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단기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일시 11.4(월)~14(목) 19:00~21:00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진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용 10만 원
문의 02) 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앗숨도미네 신입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앗숨도미네 연습실(분당구)
분야 2025년 신작 'Via Domini-주님의 길'
열두 사도 배우(성인 남성 00명)
신청 이메일(musical@adsumdomine.org)
문자(010-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9935-7870
수원가톨릭앗숨도미네(뮤지컬)

제28회 가톨릭 미술상 공모

마감 10.31(목)
제출 온라인 제출(www.webhard.co.kr
-ID:committee, PW:4607500)
방법 웹하드 접속-'게스트' 로그인
-올리기 전용-가톨릭 미술상
-'작가명' 폴더 생성
참고 www.cbck.or.kr '소식'
문의 02) 460-7647
cbckculture@cbck.kr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기 타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베트남 하노이 다낭 성지순례
일시 11.13~18(베트남항공)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일시 11.28~12.2(대한항공)
문의 010) 8705-0319 이오소피아

교구 성지순례, 성베네딕도수도원 탐방

일정 11.2~4 대구 17곳
12.7~10 부산 8곳~마산 6곳
12.14~17 대전 23곳
출발 서울 명동~죽전 간이 정류장
문의 010) 3807-1784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라파엘 해외 성지순례

일정 11.11 나가사키 4일
11.18 다낭 성지순례5일
라파엘 특선
(동반자 100만 원 할인)
11.18 튀르키예 그리스11일
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 2.11, 3.11 포르투갈
파티마 일주 9일
문의 02) 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여행사 성지순례

일시 12.20 1.17 이탈리아(희년 전대사)
1.7 2.11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가톨릭회관 619호
문의 010) 5235-3533, catholictravel.co.kr
가톨릭 여행사

채용·봉사자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기산 본당 사무장 / 채용 시
분당성요한 본당 관리원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목감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수원교구 안성추모공원

인원 사무행정 1명
휴게시설(주방·홀) 관리 각 1명
자격 세례받은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마감 채용시까지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672-4276 안성추모공원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업무 문서·한글, 워드, 디자인, 편집, 교정 등
회원·후원 안내 상담 및 교육 피정 연락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가능자)
홍보·인터넷, 디지털, 웹디자인, SNS 등
학술·선교학, 신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인류학 등 석/박사 학위소지자
문의 031) 268-2210, 010) 8376-7031

<9월 22일자 수원주보 7면 정답>



▲ 당첨자 확인



▲ 그림파일 다운로드

※ 원본파일(숨은 그림 찾기, 가로 세로 퀴즈, 퍼즐)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한 달 동안 모은 퍼즐 조각으로 그림을 완성시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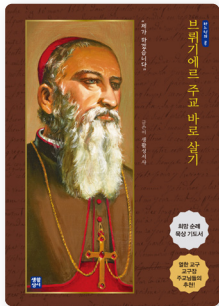
▲ 응모하러 가기

퍼즐을 맞춰 응모하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하러 가기 ▶

※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6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산책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이 책은 26주간 매주 브뤼기에르 주교의 생애와 사상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브뤼기에르 주교가 남겨 준 신앙의 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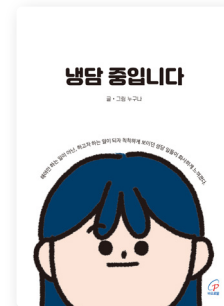
글 · 출판 | 생활성서사·생활성서
금 액 | 1만1천 원
문 의 | 02) 945-5985



성모 마리아와 사제

이 책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공경하는 까닭을 성경과 전승,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삶과 사제 직무와의 밀접한 관계를 비교하면서 마리아와 사제의 영적 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 · 출판 | 방효익·기쁜소식
금 액 | 1만5천 원
문 의 | 02) 762-1194



냉담 중입니다

냉담 중인 주인공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느꼈던 그리움, 고민, 기쁨과 어려움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의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글 · 출판 | 누구나·바오로딸
금 액 | 1만4천 원
문 의 | 02) 944-0944

2024 수원교구 순교자 현양 대회

일시 | 10.26(토) 10:30

장소 | 미리내 성지

내용 | 김대건 신부 유해 행렬 및 순교자 현양 미사
순교자 칸타타 공연, 유해친구식

주례 | 교구장 이용훈 주교, 총대리 이성호 주교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 및 사제단

특전 | 참여자 전원에게 전대사 부여

문의 | 031) 674-1256 미리내 성지

